



책읽는곰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책을 만듭니다.

드림북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8
전화 02-332-2672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책놀이책

책
읽는
곰

안녕달 작가와 작품을 소개합니다



왜냐면…

안녕달 그림책 | 책읽는곰 펴냄

끝없는 아이의 질문,
재치 있는 엄마의 대답,
한없이 넓어지는 아이의 세계!

바닷가 마을에 반짝, 여름 소나기가 내립니다.

엄마는 서둘러 유치원에 아이 마중을 왔지요.

집으로 가는 길, 세상이 온통 궁금한 아이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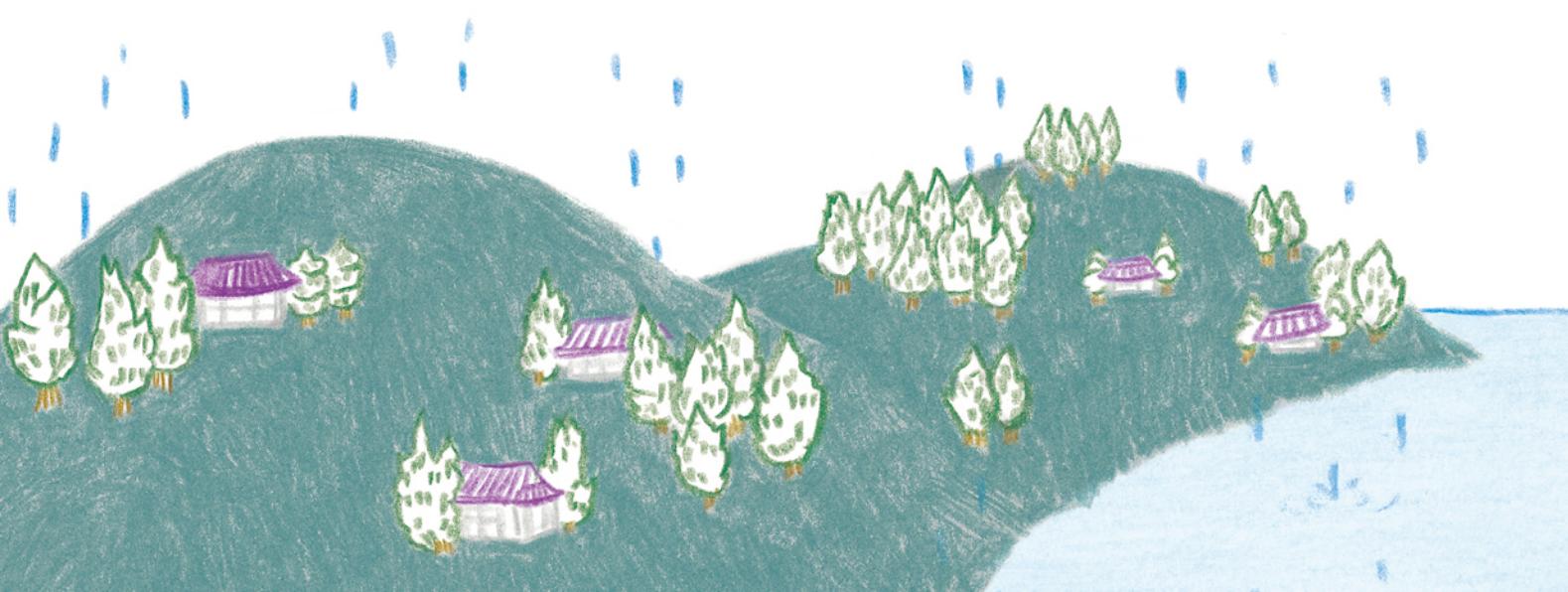
“엄마, 왜 비가 와요?”

“하늘에서 새들이 울어서 그래.”

아이의 끈덕진 질문과 엄마의 친절하고도 엉뚱한 대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둘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늘 오가던 익숙한 귀갓길은 어느새 환상적인 여행길이 됩니다.



물 흐르고 경치 좋은 산속 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저 멀리 바닷가 마을 학교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했습니다. 그림책 《수박 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 《메리》, 《안녕》, 《쓰레기통 요정》, 《당근 유치원》들을 쓰고 그렸습니다.



쓰레기통 요정

안녕달 그림책

쓰레기통 요정이 소원을 들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행복을 선물합니다.

온 동네 쓰레기가 모이는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어느 날 쓰레기통 요정이 태어납니다.

“소원을 들어 드려요!”

쓰레기통 요정은 파리가 윙윙 날아다니는 잡동사니 틈에서 명랑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쓰레기통 요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정을 보곤 깜짝 놀라 소리치거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심히 가 버립니다.

과연 쓰레기통 요정은 바람대로 누군가의 소원을 이뤄 줄 수 있을까요?



그림책을 보기 전에

- 여러분은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것이 궁금했나요?
- 표지 속 아이는 엄마에게 어떤 것을 묻는 것 같나요?
- 뒤페이지 속 금붕어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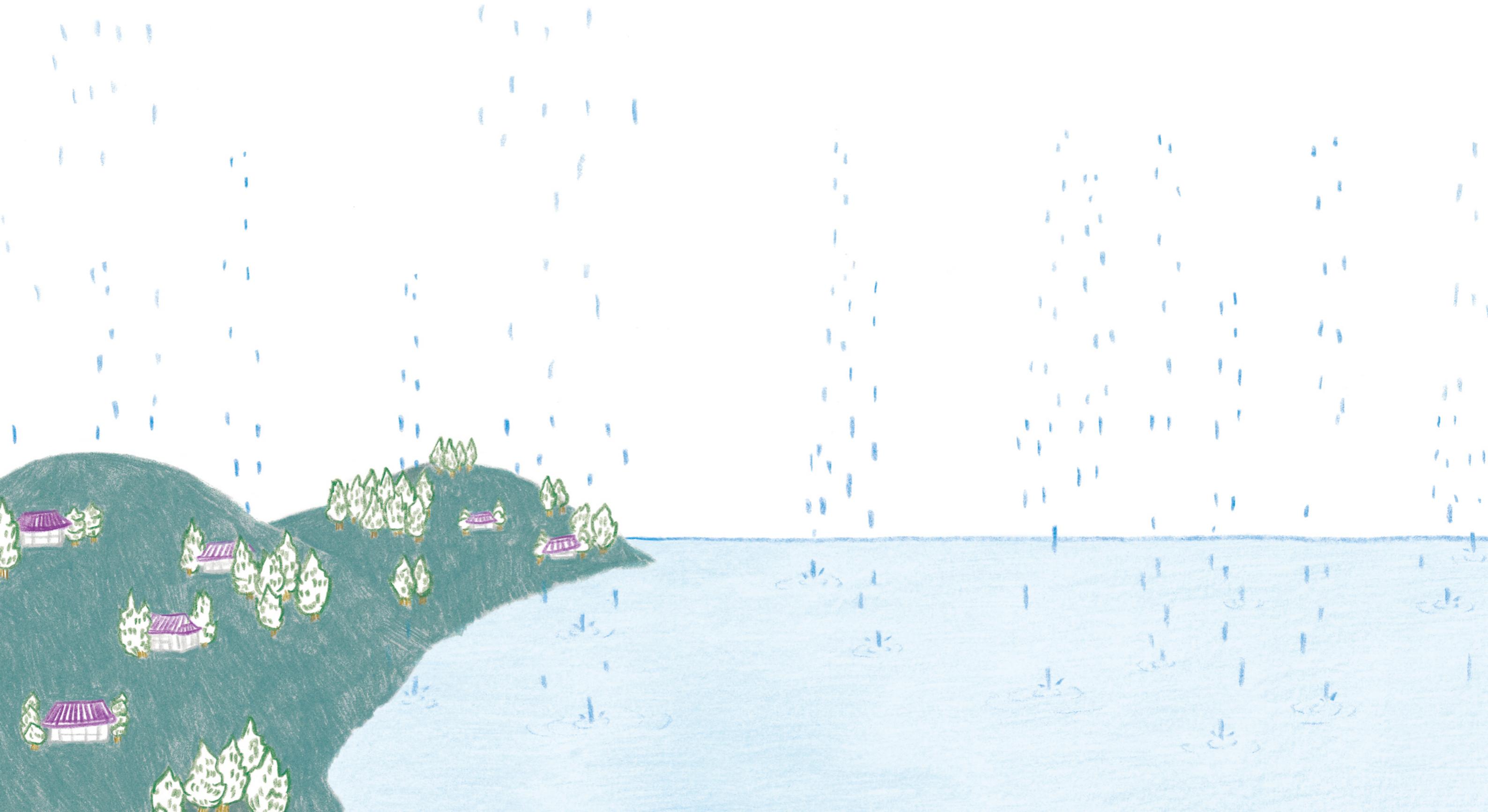
- 아이가 유치원에서 입은 바지의 색깔과 엄마랑 같이 걸어갈 때 입은 바지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바지도 매워서 운 적이 있나요?
- 엄마가 대답한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놀이 1 비가 오는 이유 상상하기

아이가 엄마에게 “비는 왜 와요?” 하고 질문하자.

엄마는 “하늘에서 새들이 울어서 그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왜 비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비가 오는 이유를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책놀이 2 내 옷은 뭐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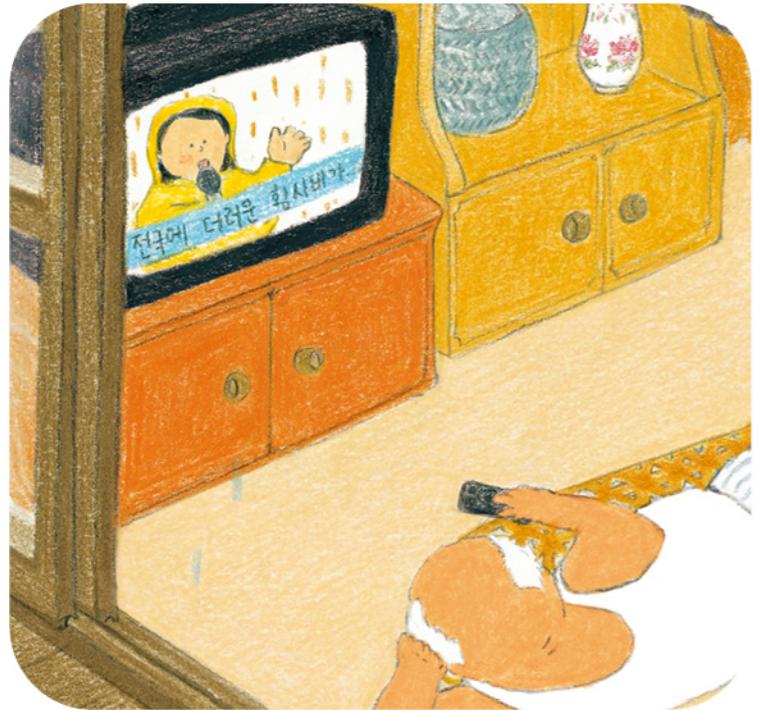
아이들이 입은 바지와 치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맵다고 하는 바지도 있고, 쉬 마렵다고 하는 치마도 있네요.

오늘 내가 입은 옷은 무엇인가요?
내 옷은 어떻게 놀지 상상해서 빈 공간에 그려 보세요.



책놀이 3 작은 장면 자세히 보기

책 속에 다양한 장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숨어 있는 장면을 보고 빈칸에 답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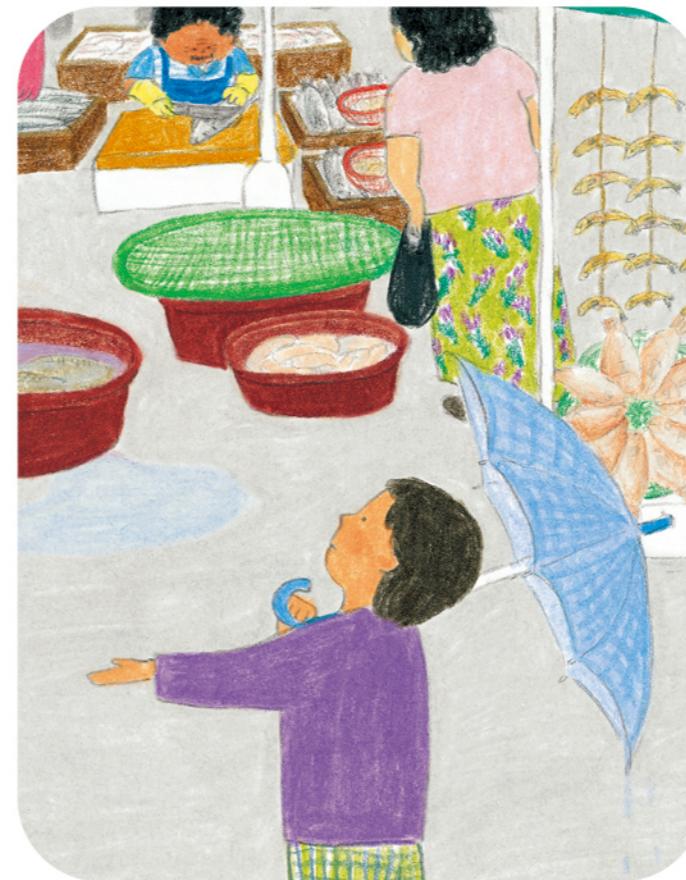
전국에 _____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생선을 노리는 고양이는
_____ 마리예요.



물고기의 목욕탕 요금은
_____ 원이에요.



비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_____ 명이에요.

책놀이 4 집에 가는 길 그리기

아이가 엄마랑 유치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어떤 풍경이 보일까요?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책놀이 5 표정 상상해서 그리기

여러분은 떡볶이를 먹어 본 적 있나요?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하고, 표정을 그려 보세요.



책놀이 6 숨은 강아지 찾기

책 속에는 강아지가 숨어 있어요. 강아지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 볼까요?



책놀이 7 내가 가꾸고 싶은 밭

물고기 밥 농장 옆에 고추밭이 생겨서 물고기 밥이 매워졌어요.

여러분은 물고기 밥 농장 옆에 무슨 밭을 만들고 싶나요?

내가 가꾸고 싶은 밭을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정답

책놀이 3



전국에 더러운 황사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생선을 노리는 고양이는
2 마리예요.



불고기의 목욕탕 요금은
100 원이에요.



비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1 명이에요.

책놀이 6

